

14

출처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뛰고 잡고,
또 뛰고 잡고



뛰고 잡고, 또 뛰고 잡고

유아는 왜 뛰고 잡고 노는 경찰과 도둑 놀이를 좋아할까?
이 놀이에도 규칙이 있을까?



교사의 놀이 의미 읽기의 시작

바깥놀이 시간에 매일 잡기 놀이를 하는 유아를 보면서 '이러한 놀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으로 영상을 촬영하였다.

놀이 흐름 따라가기

누가	언제	어디서
5세 유아	2019년 5월, 바깥놀이 시간	바깥놀이터

<교실 전경>

구름반 유아는 오전 바깥놀이 시간에 바깥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한다. 몇 명의 유아는 미끄럼틀을 타고, 몇 명의 유아는 모래 놀이터에서 모여 앉아 놀이하고 있다.

잠시 후, 바깥놀이터에 7명의 유아가 모인다. 7명에서 시작된 놀이는 8명으로, 그리고 9명으로 늘어난다.



준우: (손으로 자신과 또 다른 유아를 가리키며)
경찰, 경찰, 경찰, 경찰!



준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유아는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다.

준우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동민이와 현상이가 준우를 따라 쫓는다. 동민이와 현상이가 준우를 잡고 놀이터 한쪽 의자로 데리고 간다. 잠시 후 동민이가 앉아 있는 준우의 팔을 당기자 준우가 “오케이. 터치.”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뛰어간다.



준우: (동민이 등을 치고) 잡았다.
(놀이터 한쪽 의자를 가리키며) 저쪽으로 들어가.
동민: 나도 경찰하면 안 돼?
준우: 안 돼. 저쪽으로 들어가.
(동민이가 들어가려 하자) 나 도둑이지롱!
교사: 좀 전에 경찰이었는데, 이젠 도둑이야?



교사: 터치하면 살아나는 거야?
유아: 네.
우정: (준우에게) 나도 같이 놀아도 돼?
준우: 그래, 경찰 할래? 도둑 할래?
우정: 나는 경찰.

모두들 다시 뛰기 시작한다.

잠시 후 도둑도 경찰도 모두 달려와 의자에 앉는다.



잠시 쉬던 유아는 모두 다시 뛰기 시작한다.

뛰는 것을 멈춘 유아에게 교사가 질문을 한다.

교사: 애들아. 나는 이 게임의 규칙을 잘 모르겠어.
준우: 경찰이 도둑을 잡으면 저기 들어가는 거고
도둑이 도둑을 잡으면 부활.
교사: 도둑이 도둑을 살릴 수 있는 거야?
준우: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 그런데 아까 경찰이 살려 주기도 하는데?
준우: 네? 아니에요. 걔 도둑이에요.
교사: 누가 경찰이고 누가 도둑인지 어떻게 알아?

유아는 교사의 질문을 뒤로하고 다시 뛰기 시작한다.



신나게 달리던 철희가 나무 의자에 앉는다. 뒤에서 달리던 준우도 철희 옆에 앉는다.

철희: (놀이터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서 큰 소리로)
여기는 도둑만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교사: 여기는 경찰이 잡을 수 없는 곳이야?
철희: 네.

놀이 경험 이해

〈유아의 놀이 경험〉

유아는 그냥 놀이를 한다. 놀이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 **재미**를 위한 방법 등을 순간순간 만들어 낸다. 도둑이었던 동민이는 경찰이 되고 싶었고 경찰이 된다. 경찰인 동민이가 도둑이 된 준우를 잡는다. 잡힌 준우는 잠시 쉬었다가 ‘터치’라고 하며 감옥에서 나와 다시 놀이에 참여한다. 도둑 철희는 힘이 들어서 도둑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잠시 쉰다. 이처럼 유아는 자연스럽게 **긴장**과 휴식을 **조절**한다. 그리고 유아는 다시 뛰기 시작한다. 놀면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은 **즉흥적**으로 계속 **변형**된다.

처음에는 한 유아가 주도하던 뛰고 잡는 놀이는 금세 다른 유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놀이는 **공유**된다. 놀이의 규칙이 없어도 유아는 뛰고 잡고 다시 뛰는 **반복적**인 놀이 과정 그 자체를 **즐긴다**.

〈교사의 놀이 이해〉

교사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럽다. 일관된 놀이 규칙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놀이 방식은 유아 사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어떤 새로운 규칙이 불쑥불쑥 등장해도 유아들은 전혀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유아는 원래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놀이한다. 유아는 놀이를 즐겁게 하고 있었다.

교사 이야기: “함께 놀이해 보니 알겠어요.”

유아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경찰’과 ‘도둑’ 놀이를 하고 있었다. 여럿이 함께 놀이하고 있는 한데 누가 경찰이고 도둑인지 제대로 알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유아들이 규칙을 합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이것도 제대로 된 놀이라고 할 수 있나?’, ‘규칙 없이 놀면 다칠 텐데.’라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또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라면, 그 안에 공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아에게 계속해서 규칙에 대해 묻고, 규칙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그러나 유아는 놀이의 흐름을 끊는 나의 질문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유아는 신나고 즐겁게 놀았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놀지?’라는 의문을 품은 채 다음 날, 경찰 도둑 놀이를 함께해 보았다. 놀이하면서 잡히지 않으려고 뛰어 보니 박진감 넘치고 스릴이 있었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누가 경찰이고 도둑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잡히지 않기 위해 달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내가 유아에게 규칙을 강조했던 것이 놀이를 게임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아는 잡고 잡히는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휴식을 통한 완급 조절로, 자신의 몸을 마음껏 움직이는 놀이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 같다.

직접 놀이를 해 보니 유아에게 좋은 지원이란, 유아의 놀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유아와 함께 즐겁게 놀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유아의 놀이 즐거움을 인정하면서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게 되었다.